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주목할 만한 사실과 통계 자료

2011년 사형집행방법

.....

독극물 주사형
참수형
교수형
총살형

공개처형이 있었던 국가들

.....

이란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소말리아

58 개국이
사형존치국
으로 분류되고 있다.

20 개국이
사형집행
을 실시했다.

140 개국이
사실상·법률상 사형폐지국이다.

3 명의 사람들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이란에서 처형 됐다.

벨라루스
는 유럽과 구소련 국가들 중 유일한
사형집행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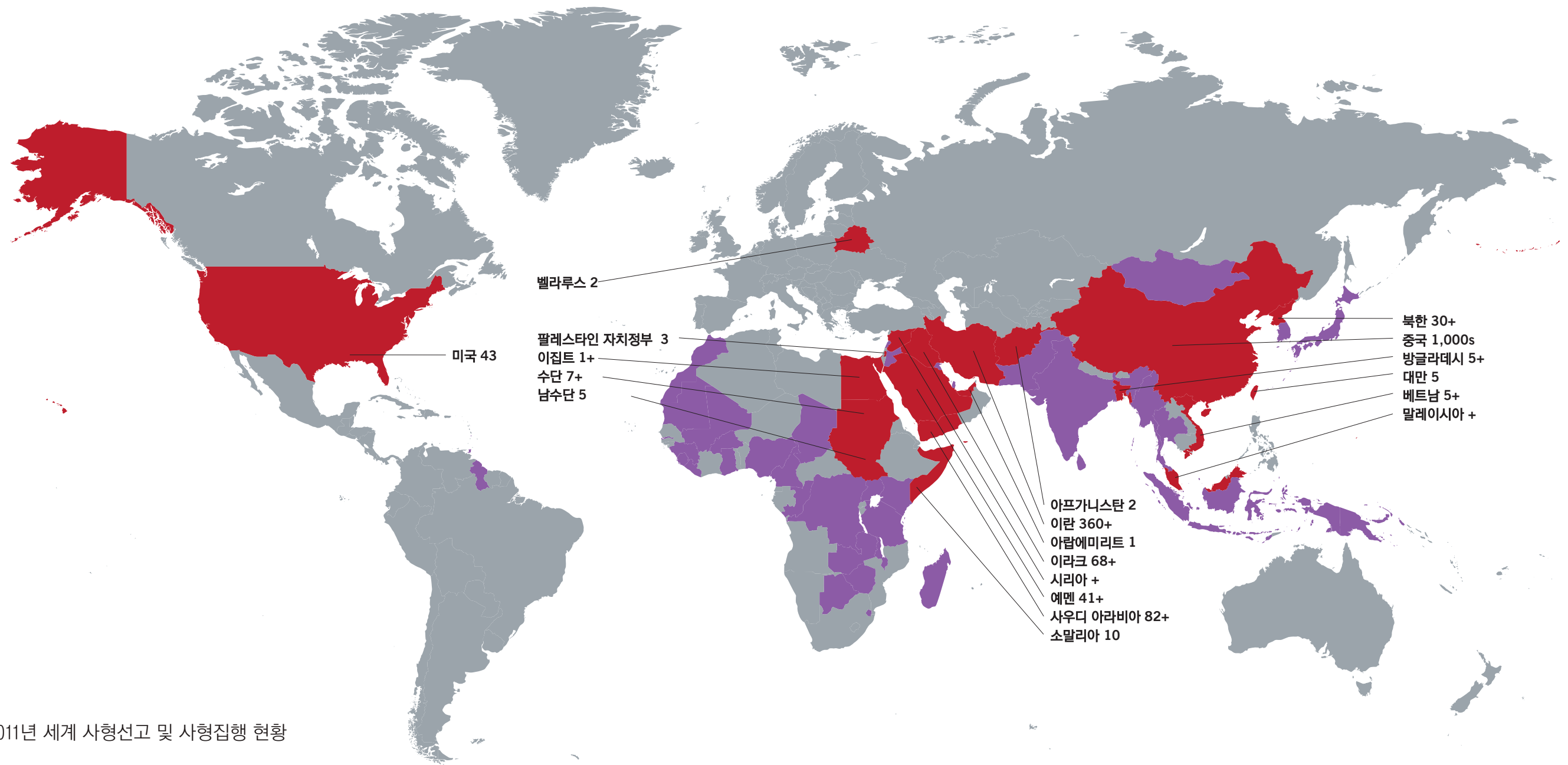
18,750 명 이상이
사형수
로 살고 있다.

미국 은
G8 회원국 중 유일하게
사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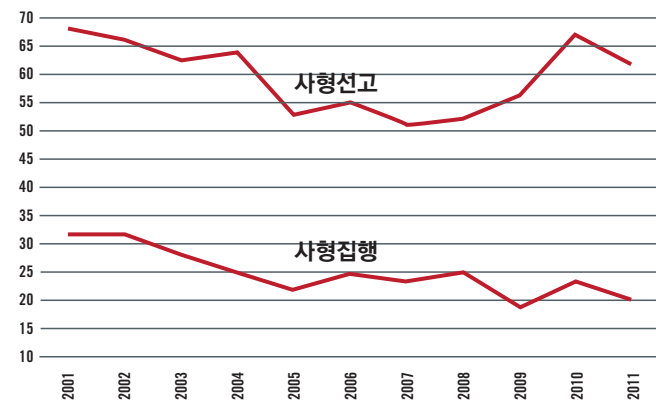
일본 에서는
19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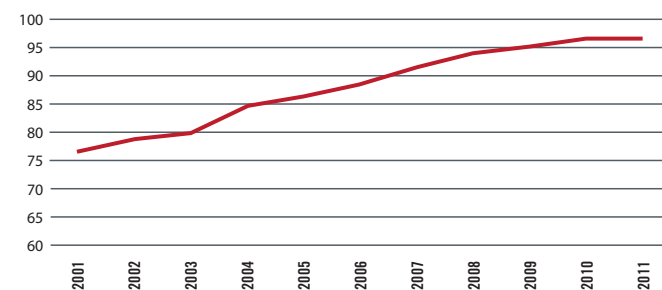
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2001 ~ 2011년 세계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 현황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추이



■ 사형집행과 사형선고가 있었던 국가, 숫자는 사형집행 건수
 ■ 사형선고만 있었던 국가

나라 이름 뒤 숫자와 "+"가 있을 경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추산한 숫자가 최소치임을 의미한다. 숫자 없이 "+"만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한 건 이상) 사형을 선고했거나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 지도는 각국의 국경과 관할영토에 대한 일반적인 위치만을 표시할 뿐이며, 영토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011년 최상위 사형집행국

